

Collection of Selected Essays

The 1st Korean Language
Writing Contest for Non-Koreans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SERVICE NY



Korean Cultural Service NY and the Korean Culture Research, Inc. held the 1st Korean Language Writing Contest for Non-Koreans at October 15, 2011. This collection is selected from the submitted essays for the contest.



내가 알고 있는 한국

Ryan Russell

Grand Prize

제목
Title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이름
Name

라이언 러셀
Ryan Russell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모순이 많은 나라다.
 동시에 현대적이고 고대적인 나라다. 한국 시민들이
 성격 급하면서도 배려심이 열열히 있는 나라다.
 땅이 좁고 인구가 5천 만명 밖에 안되더라도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을 못하고 있는 나라다.
 이 많은 모순들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갈때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을수 밖에 없을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순들이 한국의 가장 위대한
 재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순들의
 원인은 바로 해결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창조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이지 않은 것
 같은 나라 입니다. 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한 누구나의
 첫 인상은 "와~ 여기가 미래의 세상 안인가" 싶습니다.
 실은 몇 년 연속 인천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출입구가 세상에 제일 훌륭한 공항에게 만 주고 있는
 특별 상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된 모습이
 여러 면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부터 최고의 휴대폰, 텔레비, 자동차, 와 지적 재산
 (등등등)을 세상에게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본질적으로 옛날 나라 이라고 할수 도 있습니다.

최신 한국 드라마 중에 옛날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가 흔합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병 걸리면 물론 병원에 가겠지만
한의원 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분야에서
(건축, 예술, 대인 관계 등) 한국의 옛날 모습이 안 사라지고
든든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견해에서 한국 사람과 대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순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가 시민의 좌우명
되가는 대한민국에서 속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
들 눈앞에서 보았는데 한국 사람 만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백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물어지지만 아다도
한 마음속에 옛날 세상과 현대 세상 함께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말, 행동, 생각이 외국인에게 모순된 것처럼 보일 지도
몰으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속에 모순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의 시내서 길을 잃어 버린 나를 도와줬던
수백 명의 대학생 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을 돕는 건 놀랍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이 무리가
모였다는 이유가 반미 데모였습니니다. 미국 시민으로
내 나라의 정부 곧 데모하는 대학생들 데모를 잠시 멈추고
나를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추억은 아직도 나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다시피 인구나 땅크기에 다지면
대한민국은 큰 편 안입니다. 하지만 한국속담이 말 그대로
작은 고추가 맵다. 수천년 동안 중,일 고래 두마리
사이에 겨우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21 세기에
고래 2마리 포함된 온 세상이 죽음만 한 세우로 비유했던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고 감탄합니다. 아직 발달이 안된 여러나라가
한강의기적을 의식적으로 흉내 내려고하고 발달국은 최근에
한국의 경제 회복의 비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한류가 한동안 일본과 중국 사회를 사로잡았는데 이제
서양 까지 번식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 많은 모순 때문에 처음 한국에
가는 많은 외국인들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인 한국을
오해합니다. 그런데도 모순된 대한민국은 바로 미래의 세상을
내다 볼수 있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잘 합원화하지 못한 국가 차이에관한 많은 모순들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호화스럽게 합원화할수 있는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옛날을 배리자 많은면서도 현대화 하고
효과적으로 살면서 도 정을 안알아 버리고 세상의 잠재력을
이루워질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 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 이런 나라 입니다.

내가 알고 *George Vourderis* 있었던 한국 이영준

제목
Title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이름
Name

이영준 George Vourderis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나라다. 나는 스무두살인 사학년대학생이고 어릴때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소원이 딱 하나 있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텔레비전에서 열심히 보던 드라마와 매일 듣던 음악을 만든 나라로 직접 여행하는 것이었다. 작년에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따가지고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마음이 복한 그 느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인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보는것부터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짐을 다 싣어놓고 신촌으로 향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바로 신촌의 밤 문화가 아닐까? 매일 오후 다섯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오는 이곳은 온 세계를 헤매고 헤매어도 다시 찾기 어려운 장소라고 생각한다. 계획대로 했더라면 한국에 한 학기가 있다가 중국이나 일본에 교환 학생으로 갈 것인데 나는 한국 대학생활이 아주 재미있고 특별해서 세번이나 학기 연장하기로 했다. 다른 어학당 친구들이 나를 신촌왕자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골목길을 다 외우고 신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진심으로 느끼는건데 신촌이 내 두번째 고향이 돼버렸다.

밤은 화뿐만 아니라 서울의 숨어있는 맛집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발견한 시골 아주마의 손 맛을
 가진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어딘지 내가 다 알아봤다.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맞긴 하지만
 한국 요리대화에 한국말을 계속 공부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뭐든지 한번이라도 먹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져서 회, 산낙지, 보신탕을 등등 여러가지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다.
 내가 아는 한국이 전통 맛을 가지고 퓨전 요리, 여러 나라의
 맛이 잘 어울려 완성되는 한국 요리가 아닐까?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이 이렇게 저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갔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르더라.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 맨 하렘에서 사는 것처럼
 국제적이고 다양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새로
 사귀었던 친구들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한국말로 이야기 하면서 친해졌다. 제 전공이
 스페인어라서 그런지 주변에 스페인어랑 한국어 아는
 친구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페인어 실력이
 한국 실력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 웃기지 않나? 내가
 아는 한국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문화를 지키며
 국제 화되고 외국 문화도 잘 받아들이는 나라인 것 같다.

지금론 미국에 있지만 내 마음이 아직 한국에서
살고 있나보다. 뉴욕에서 한국문화를 다행이도 쉽게
접할 기회가 많지만 느낌이 다르다. 마음 놓고 편히
즐수있는 신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 음식을 먹을 수고
한국어랑 다른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만날 수있는 곳
그 곳이 바로 한국이다. 각자가 한국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에게는 한국이 이런
나라라고 믿는다. 한국에 언제 돌아갈지 말연하지만
그 날이 올때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알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 한국 친구 하칭칭

Qingqing He
2nd Place

제목
Title

(제 한국 친구)

우연히 만났기가 인생에서 소중한 만남이 됐다

이름
Name

Qingqing He 하칭칭

저한테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중에서 한국사람들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원언니는
그 중에서 한 분입니다. 저와 지원언니의 우연히 만남은 저에게
아주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학년 때 인터넷에 있는 애기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음악 자주 듣고 가족들과 같이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어를 혼자서 조금 배웠습니다. 연습을 더
하고 싶어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려고 애기실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명문의 계획처럼 지원언니가 저한테 인터넷에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의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원언니가 저하고 매일 인터넷으로 얘기하고
가끔도 통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니의 가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자주 보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지원언니는 항상 저에게 응원했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니가 슬펐을 때 저도 기뻐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육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에 언니한테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가 항상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일월에 빅뱅 콘서트를 보려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으로
떠났습니다. 롯데월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언니를
드디오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만나기가 처음이었지만 우리 서로

너무 친해서 어색하지 않게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가고 싶은 곳과 하고 싶은 일을 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언니가 제 안내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지원언니하고 '키피프레스'를 찍었던 커피숍에 갔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맛있는 커피와 아침을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홍대 근처에 있는 한 유명한 옷 가게를 찾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꼭 드는 옷과 가방을 샀습니다. 저녁에 제 어머니와 함께 우리 셋이 쇼핑하러 동대문시장에 질하철로 갔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인터넷으로 좀 알아봐서 가장 맛있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언니와 어머니를 데려하고 그 식당에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한국 음식 중의 제 입에 ^딱 맞는 불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어머니께서는 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 날에 우리 사진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 날 ^{후부터} 지금까지 자원언니를 다시 만나 볼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돼서 점점 바빠졌지만 지원언니한테 일주일에 한번 통화를 꼭 합니다. 언니는 지금 대학 4학년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자주 응원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점점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언니하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서 언니가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기뻐했지만 아무렇지 않는 척 미소를 짓^니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육년 동안 지원언니를 자주 못 만났지만 지푸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편에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한국 문화를 자주 알려주셔서 제가 예전에 모른 한국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새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기뻐지게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없으면 제 인생은 지금처럼
화려하고 재미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우연히 만났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

Yuxi Wang

3rd Place

왕유희

제목
Title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이름
Name

왕유희

Yuxi Wang

내가 아는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고
세계적 문화를 있는 곳입니다. 아마 대부분 중국 청년들한테
한국하면 김치나 음막이나 생각합니다. 1996년 '한류'가
중국에서 가고 그때부터 전아사사람에게 좋은 모습이 보여주었
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 못 가봤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은 중국
베이징처럼 지하철 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만큼 크지 아니만
서울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 때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예전 친구한테 '부산의 지하철
중국의 지하철은 비슷한 크기였어'는 말을 들었어서 아마
부산 사는 사람들이 회사에 다닐 때 더 행복하게 가분입니다. 지하
철도의 열차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그리고 통
일호이라는 열차의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가
새마을호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열차 더 깨끗하고 성무원들
이 전차 친절합니다.

하지만 교통상황을 대한 관심을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왔
는 곳이 다 좋은 곳이니가 한국에 가면 꼭 볼 곳을 한강입니다
한강이나 종로나 다 가고 싶습니다. 운전하고 강변도로로 가면
아름다운 한강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풀라게
가지고 종로에 가면 무슨 예쁜 선물을 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에게 줄다고 생각이 드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미친정도로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떡볶이 꼭 먹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나오는 장면이 이겁니다: 친구들 밑이 끝나후에 매운 떡볶이를 먹고 술 한잔 마실겁니다, 술 한잔도 못하지만. 도 유명한 63빌딩과 오야정, 신라산와 제주도 등등. 가고 싶은 게 많아있어서 지금 어디로 먼저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에서 제일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있어서 한 번 가면 그 보이그룹 공연이 안보던 절때 안 된다고 친구들 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24살 이지만 10대 소녀들도 아니고 광팬 도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그 그룹의 슈거스를 볼겁니다. 지냈던 6년동안 그 그룹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제 지냈던 6년의 기억이 다 그 화발하고 멋진 음악중에 있으니까 그 노래 단상하는 곳이 가서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 설이야하게 알고 왔습니다. 설이때 아이들이 노린들에게 돈을 받고 새 옷을 입고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서 한 살이 더 먹으라고 뜻입니다. 설이날 음력 1월1일 이니것을 중국과 똑 같습니다. 도 너무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 때 밖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차례 도하고 송편도 먹습니다. 그 날은 절반 4강들이 집으로 돌아 갑니까 한국에서 '민족의 대일동'이라는 사회현상을 생겼 집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고 왔는 4

감들에게 '조심하게 운전하고 집에 잘 도착하게 바랍니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내가 아는 한국은 산이 많고 바닷이 넓은 곳입니다. 패션이 있고 전통도 잘 보존하는 나라입니다. 서양문화를 발전하고 있고 동양문화를 건강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 계속 열심히 배우려고 더 유창하게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
Rachel Lee
Honorable Mention
레이철 리

제목

Title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이름

Name

Rachel Lee

..... 내가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말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는 막 수차였지만 지금까지 벌써 4년이 되었고 내 정공도 한국 현대문학으로 바뀌었다. 내가 원래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던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나 한국 음악 때문에 조금 있었고 그 때의 주제를 알고 있었고. 일본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국어를 선택했다.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다. 어렵지만 재미있었다. 언어를 배우는 좋은 점이 힘을 조금만 내면, 그 실력이 빨리 빨리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배우는 것도 쉽게 될 수 있다.

..... 나는 한국말을 배우는 년동안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영어가 가 보고 싶어도 항상 다른 일이 생겨서 아니면 돈이나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직접 가고 경험하고 자기 경험으로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세계적인 눈으로 밖에서만 보는 한국이다. 한국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면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은 어떤 국가가 되었는가 - 이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다.

..... 이걸로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두 면이 있다. 하나는 밖에 세계가 보고 있는 한국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밖에 세계에게 보여 주는 모습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주 훌륭한 나라다. 20 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 짧은 시간동안 한국에서 생긴 일중에 전쟁도 있고, occupation하고 dictatorship도 있지만 정치적인 경제적 성공도 많이 있었다. 1910년부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외국 영향 계속 되어도 한국문화나 한국 사람의 특징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2010년 까지 가지고 있다.

.....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국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한국문화는 많이 변화해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것이지만, 아무나 보아도 한국 문화는 점점 서양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음악 만하면 알고 있을 것이다 - 한국 pop음악의 노래는 다하식

하나씩 다 영어 가사가 있고, 그중이름까지도 영어로 부를 것이다. 이것은 아마 한국은 1960년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그 서양적인 주의를 따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늘 한국말을 조금만 보면 그 중에 영어에서 빌려온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점더 ^{real} "리얼"하게,
"컴퓨터" 사고, "판타스틱"한 생활을 하자, 이것이 다 영어이다.

한 편은 한국 사람들이 더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 서양 영향을 많 받았고 그 중에 ideology도
많이 adapt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볼 때 사실은 아주 친하고 친절한 느낌도 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많은 것이 벌써 서양화 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금 한국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금 세계로 보여 주는 한국문화에 하나다.
물론 한국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성공은 우리 다들 볼 수 있지만, 한국은 한국문화로 전해 주는 중요한
것이니까 한국의 다른 특징 많이 들어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음악을 보면, 지금 한국은 벌써
동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인기 많아졌다. 대만 중국, 일본, 태국 - 이 여러 나라에서 다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고 한국음악도 들을 수 있다. 이번 주말에 뉴욕에서 한국음악 전시회가 있다는 것도 한국은
미국이나 Europe, 남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종종하게 생각해야 된다. TV 프로그램 아니고, 좋은 노래나 재미있는 가사만 아니다. 그 중에도
어떤 한국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있고, 한국문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 것이다. 남녀관계나 가족관계나
음악, 상업에서 나타는 문제들 다 한국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 알게 될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때 변화 중이라고 생각한다.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눈에게 더 잘 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자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좋게 만드려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사실상은 어떤 나라이고, 한국을 직접 가는 느낌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나라에 대한 말을 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사람들이 많고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데도 많아졌다. 뉴욕시에서 한국타운도 있고, 한국 식당이나 시장도 많고, 여기 한국문화재단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지금 내옆에 있는 "한국"이다.

우리가 개인의 문화, 교육, 가정 배경 때문에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문화를 볼 때 어느 정도의 judgment를 항상 가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대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보아 있는 한국은 내가 더 알고 싶은 한국이다. 한국 문화, 문학, 역사, 한국 음식, 사람, 정 - 이것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배우면 한국도 더 잘 알 수 있다고 바란다.



장소: 뉴욕한국문화원 ▶ 일자: 2011년 10월 15일



October 2011

Publish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460 Park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Tel: 212 759 9550
Fax: 212 688 8640
info@koreanculture.org
www.koreanculture.org

Copyright © 2011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ver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